

KIA 4년만에 군산경기

한화와 주말 3연전...프로야구 봄 조성 네임데이 개최도



마구마구

4강고지를 향해 진격중인 호랑이들이 군산 나들이에 나선다.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군산 월명야구장에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와의 주말 3연전이 열린다.

이번 군산 주말 3연전 동안 네임데이 행사도 개최된다. 5월1일 농협 군산지부, 2일 호원대학교, 3일 군산대학교가 네임데이를 실시하면서 전북지역의 프로야구 봄 조성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주말 출격 준비로 분주한 KIA에서 군산 방문을 가장 기다리고있는 이는 얼마 전 유니폼을 갈아입은 내야수 김상현이다.

김상현은 2000년 KIA 전신 해체에 입단했다가 2002년 투수 방동민과의 1대1 트레이드로 LG 트윈스로 팀을 옮긴 '이적생'. 지난 19일 투수 강철민과의 1대 2 트레이드를 통해 LG에서 7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김상현은 군산초-군산남중-군산상고를 졸업한 군산 토박이다.

군산초 5학년 때 처음 방방이를 잡았던 김상현은 지난 26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대구 경기에서 생애 첫 만루포를 쏘아올린 데 이어, 28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결승타를 터뜨려 팀의 연승행진을 이끌며 주가 상승중이다.

오랜만에 고향 방문에 나서는 김상현은 "LG에 있을 때 군산 원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고향에서의 경기라 부담을 많이 느껴 3경기에서 안타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 했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앞에서 꼭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군산 경기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한편 KIA는 오는 8월7일 다시 군산을 찾아 SK 와이번스와의 주말 3연전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일화 스폰서 계약

KIA 타이거즈가 29일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단 사무실에서 김조호 단장(사진 오른쪽)과 (주)일화 심대근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스폰서 조인식을 갖고 올 시즌 동안 7천만 원 상당의 진흥플러스 720박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9개 홀을 증설해 27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변신한 함평다이너스티CC가 내달 1일 새롭게 개장한다. 사진은 새로 증설된 팰리스코스 9번 홀 티 박스에서 내려다 본 클럽하우스와 4번 홀(왼쪽).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함평다이너스티 CC 27홀 '새 단장'

명품 '팰리스 코스' 추가...내일 오픈 온그린만 하면 '땡그랑' '깔대기홀' 인기

호남 최초의 양단지 골프클럽 함평다이너스티 CC가 남성적인 묘미를 더했다. 웅장하고 업 다운이 큰 9개 홀을 추가, 27홀 회원제 골프장으로 내달 1일 새롭게 오픈한다.

오랜 증설 공사 끝에 첫 선을 보이는 팰리스 코스(PALACE COURSE)는 면적 40만396㎡에 전장 3천205m를 자랑한다. 4 계절 늘 푸른 양단지 캔터키 블루 그레이스로 조성돼 기존 임페리얼(IMPERIAL)·마제스티(MAJESTY) 코스와 일체감을 줬다. 세계적 골프 코스 설계가 로널드 프림(Ronald Fream)의 손길이 들어간 또 하나의 명품 골프코스다.

팰리스코스는 계곡과 구릉 등을 최대한 살린 자연친화형으로 조성됐다. 무엇보다 웅장하고 전장이 길어 힘을 필요로 하는 남성적인 코스다. 페어웨이의 적당한 업 다운과 요소요소에 배치한 규사 방커와 워터해저드가 힘과 세기를 갖춘 골퍼들의 도전의식을 자극한다.

1번 홀(파4·360m)은 페어웨이에 평탄한 곳이 없을 정도로 굴곡이 많다. 2번 홀은 파3이지만 전장이 무려 200m에 오르막이다. 웬만한 골퍼라면 드라이버를 잡아야 한다.

오른쪽에 계곡이 있어 '슬라이스 바람'이 강하게 부는 4번 홀(파4·370m)은 대표적인 곤난 코스이다. 내리막이 심한 5번 홀(파3·175m)은 그린 왼쪽 가장자리

에 홀인원 이벤트홀이 있다. 7번 홀(파4·370m)은 좌측 도그레그(Dog Leg) 홀로서 티샷만 '슬라이스 바람', 세컨드 샷만 맞바람과 싸워야한다. 9번 홀(파4·340m)은 반대로 내리막으로 '훅 바람'이 많이 부는 코스로 가장자리에 이벤트홀인 이글 홀이 조성돼 있다.

그늘집 등 부대시설도 훌륭하다. 특히 5번 홀 그늘집은 클럽 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해 전망대 역할을 한다. 호젓한 산장 분위기를 연출해 라운딩 도중 잠깐이나마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홀 사이엔 300m의 캐나다 단풍나무길과 400m의 소나무 삼림욕 길을 조성, 내장객들이 지루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코스 주변에는 양귀비·금계국·누드베키아·쑥부쟁이 등 24종의 야생화를 심었다. 4 계절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게 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추신수 7경기 연속 안타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추신수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 홈 경기에 우익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를 때리며 1득점을 올렸다.

또 볼넷도 하나 골라내면서 올 시즌 15개로 팀 타자 중 볼넷 1위를 달리고 있다. 타율은 0.292에서 0.290(69타수 20안타)으로 조금 낮아졌다.

첫 타석인 1회말 2사 1, 2루에서 1루수 앞

방볼로 찬스를 날린 추신수는 팀이 3-7로 뒤진 3회말에서는 1사 후 시속 124km짜리 커브를 잡아당겨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치고 나갔다.

후속 타자의 몸맞는 공으로 2루로 진투한 추신수는 이어 상대팀 수비 실책 때 홈을 밟으면서 득점을 올렸다.

4회 삼진으로, 6회에는 2루수 팻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8회말 2사후 볼넷을 골라 나간 뒤 도루에도 성공했으나 후속타 볼볼로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시즌 5호 도루로 전날에 이어 2경기 연속 도루에 성공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7일 잠실 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2009 프로야구 두산과 한화 경기를 일시적인 우천인에도 성급하게 취소시켜 팬들에게 혼선을 야기한 최동원 경기운영위원회에 출장정지 6경기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KBO는 또 26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 KIA 경기 5회초 KIA 공격 때 선형주자 이현곤을 추월한 김상훈과 관련해 잘못된 규칙을 적용해 이현곤을 아웃시킨 오훈규 2루수에게 제재금 30만원을 부과하고 주심을 맡은 임재섭 심판위원에게 경고 조치했다.

두산-한화전 우천 취소 최동원 운영위원 제재

박태환 세계선수권 '모의고사'



내달 미국서 장거리 최강 멜틀리와 전초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20·단국대·사진)이 세계선수권대회에 앞서 다음 달 미국에서 장거리 최강 우사 마 멜틀리(튀니지)와 모의고사를 치른다.

박태환 전담팀을 운영하는 SK텔레콤 스포츠단은 29일 "박태환이 5월22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2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열리는 자넷에반스 인비테이셔널 수영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박태환은 일단 자유형 200m(22일), 400m(23일)를 비롯해 1,500m(24일)에 참가 신청을 했으며 대회 일주일 전 몸 상태에 따라 최종 참가 종목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 참가는 지난 1~2월에 이어 2차 전지훈련 기간에도 박태환을 지도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데이브 살로 감독이 추천해 이뤄졌으며 박태환이 직접 참가 종목을 결정했다.

자유형 200m, 400m와 1,500m는 박태환이 오는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다.

2007년 호주 대회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은 이번 로마 대회에서는 자유형 400m 2회 연속 우승과 1,500m 기록 단축을 노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USC에서 함께 훈련 중인 베이징올림픽 남자 자유형 1,500m 금메달리스트 멜틀리도 참가할 예정이라 박태환은 로터는 세계대회를 앞두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도 미국 전지훈련을 떠나면서 "멜틀리 역시 로마 세계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선수와 같은 곳에서 훈련할 수 있어 미국을 택했다. 멜틀리는 라이벌이자 나로서는 많이 배워야 할 선수"라며 멜틀리와 경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박태환은 "7월 세계선수권대회를 목표로 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직 몸 상태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기록보다는 훈련 과정의 일부러는 마음가짐으로 세계적인 선수들과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달 29일 귀국하는 박태환은 현재 오전과 오후 2시간씩 30분씩, 하루 평균 5시간의 수영 훈련과 2시간의 웨이트트레이닝 등 강도 높은 훈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워 포핸드

러시아의 엘레나 데멘티예바가 29일(한국시간)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열린 포르테 그랑프리 테니스대회에서 독일의 안나 레나 그리네펠트의 볼을 받아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권한열 남자 접영 100m 한국新

권한열(전주시청·사진)이 남자 접영 100m에서 한국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가대표 성민(서울시청)도 남자 배영 50m에서 한국 수영사를 새로 썼다. 권한열은 29일 경북 김천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1회 동아수영대회 사흘째 남자 일반부 접영 100m 결승에서 53초20에 레이스를 끝내 한국 신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 정두희(서울시청)가 세운 53초62의 한국 최고 기록을 0.42초 줄였다. 국가대표 정두희도 53초52에 결승선을 찍어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 기록을 깰까 했지만 권한열에 밀려 2위로 밀렸다.

성민은 남자 일반부 배영 50m 결승에서 25초44의 한국 최고 기록으로 우승, 국가대표의 자존심을 살렸다. 자신이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작성한



종전 한국 기록 25초 57을 2년4개월 만에 0.13초 앞당겼다. 성민은 지난 27일 남자 일반부 배영 100m 결승에서는 55초37의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전날 평영 100m에서 백수연(경기체고)에게 우승을 내줬던 국가대표 정다래(부영여고)는 여자 고등부 평영 200m 결승에서 2분25초80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어 지난해 자신이 세운 대회 기록(2분28초60)을 무려 2.80초나 단축하며 1위에 올랐다. 정슬기(부산시체육회)가 가진 한국 최고 기록(2분24초20)에는 1.60초 늦다. /연합뉴스

러시아 10대 소녀들 평영·배영서 세계新

러시아 10대 수영 선수들이 하루에 세계 기록을 네 번이나 갈아치웠다.

29일(한국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율리아 에피모바(17)가 모스크바 올림픽수영장에서 열린 러시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50m 평영 결승에서 30초05에 터치 패드를 찍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에피모바는 45분 전 열린 준결승에서 30초23으로 끝낸해 제이드 에드미드톤(호주)이 2006년 세운 세계 기록 30초31을 갈아치우더니 다시 수영사를 새로 썼다.

아나스타샤 주에바(18)는 여자 50m 배영에서 세계 기록을 두 번이나 경신했다. 주에바는 대회 결승에서 27초47만에 레이스를 끝내 자신이 예선에서 세운 세계 기록 27초48을 0.01초 단축했다. 종전 기록은 호주인 소피 에딩턴 가지고 있던 27초67이었다.